

# 광주 찾은 安-劉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것... 지지해 달라”

### 유승민 “좋은 일에는 광주-대구가 다를 수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등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 회의실에서 '국민통합포럼 민생 경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3일 국민의당 창당 기반인 호남의 핵심 '광주'를 찾아 "어떻게 연애를 해서 결혼한 만큼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며 통합신당 지지를 호소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두해 가장 먼저 당론으로 만들고 일어났다. 바른정당은 표결로써 (탄핵을) 완성한 정당"이라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탄핵의 시종과 완결을 실행했던 세력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반대하는 분들이 '적폐세력'과 손 잡는다', '수구보수와 (통합)하는 게 아닌가', '안철수가 대신을 위해 호남을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이 아닌 모함 악의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며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저희 목표는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의 2단계 통합은 절대 없다"며 "우리 통합개혁신당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당 내부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이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고 통합 반대파에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민약 올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대신 잘못된 길을 가면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당으로 열심히 노력

하고자 한다. 그것이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며 "이런 길이, 이런 통합이 호남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호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불출기를 터준 곳이다. 그리고 항상 개혁의 선두에 계셨다"며 "호남에서 (통합정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유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좁게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자유한국당을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저하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길게 보자는 총선,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정치를 하면서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한 번도 악용한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행복과 각자 인권, 권리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 광주와 대구, 부산, 전주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광주, 전남, 전북의 호남인들이 통합개혁신당에 대해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당장 신뢰가 생기길 원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어려운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대로 개혁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언젠가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줄 날이 꼭 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안 대표도 이제까지, 오늘까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

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적인, 사소한 생각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 등을 다 극복하고 안 대표와 제가 의기투합하는 게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정치다. 어렵게 연애를 해 결혼한 만큼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호남의 통합신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미 '통합 후 백의종군' 의사를 밝힌 안 대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재차 나왔다.

유 대표는 그러나 "통합신당의 초반 골든러인의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 그 성공이 결국 국민 지지로 나타날 것"이라며 "그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백의종군이라는 게 대단한 권력 양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그 점에 대해 안 대표도 통합신당 성공에 당연히 책임을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분이다.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안 대표 시뮬에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통합신당 초반에) 국민이 보기에 최선의 리더십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에 "(백의종군) 각오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결국 유승민은 대표,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로 역할분담을 하는 게 아니냐고 왜곡하는 분도 계신다. 그런 역할 분담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며 "양당에서 합의되는 리더십, 대표 체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 대표는 당초 유 대표와 광주를 공동 방문한 뒤 귀경, 통합 반대파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당무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중재와 의원들의 민류로 일단 당무위를 보류했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사실상 합의이후에 힘을 실어줬었다."

안 대표는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입장을 밝혔다.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유 대표는 이에 "통합이 확실히 이뤄지는 시점까지 (비례대표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안 대표와 통합에 찬성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결정하실 문제"라며 "제가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 노회찬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와 교섭단체? 금시초문”

### “단일팀 논란, 접근 아쉽지만 범죄행위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개혁신당파) 일각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다.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이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통합 반대파의) 그런 얘기는 현재 폭설이 내리고 있는 한겨울인데, 여름에

어느 해수욕장을 갈 거냐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 사랑 없는 결혼은 썩 내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당이 자신의 정치 노선이나 철학을 국민에게 내보이고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당을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런 데에 기초해야 한다"며 "(교섭단체로서) 몇 가지 혜택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

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만 "새로운 상황이 또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선수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다른 배려까지를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는데 아쉽다"면서도 "그걸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스

## 우원식 “2012년 대선 MB가 훼손...사법적 단죄해야”

### “권력 사유화·부패 일상화 중독 수준 증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4년 천안시안 게임 여자축구 결승전 북한과 일본 경기에서 북한을 응원하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의 남북단일팀에 대해서 따지를 걸지 말라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것이 민천하에 드러났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모씨가 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한 것이 위증이라고 검찰에 자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을 더럽힌 행위는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현정질서 문란 행위"라며 "위증을 지시한 뒷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명박 정

권 시절 정보기관의 민간인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져 이명박 정부로 확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보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사용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은밀히 전달했다는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의 일상화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권력이 결탁해 대선 개입 요건을 영합을 미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정보기관 청와대, 사법부, 당시 여당까지 부패의 굴, 민주주의 유린 행위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두려울 정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9년과 과감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진전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아닌 색깔론 뒤편 띄우기 올림픽으로 만드는 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이라며 한국당 정권 시절 남북 교류와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파리기케트 본사와 가맹점 사제처럼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고통 분담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진 높은 임대료 부담, 일방적인 비용전가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힘을 실겠다"고 했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무료상담환영"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